

이슈 키워드

온라인 여론			민원		
순위	키워드	언급량	키워드	민원건수	유형
1	LH	6,142	불법 주정차	59,026	생활불편
2	백신	4,327	GTX-C 오이도역 연장	28,730	지역이슈
3	변창흠	1,671	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	24,286	생활불편
4	아스트라제네카	1,391	재건축 안전진단	8,084	정책관련
5	국토부	1,241	아파트 네이밍	6,666	정책관련
6	국채금리	1,180	광역교통대책 수립	6,164	지역이슈
7	가덕도	1,160	LH 직원	3,952	정책관련
8	부동산투기	871	어린이 보호구역	3,031	지역이슈
9	집단감염	870	쓰레기 소각장	2,537	지역이슈
10	화이자	756	검단신도시	2,154	지역이슈

* 민원 : 국민신문고,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·반복 민원 포함(3.8~3.14) / 온라인 여론 :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·트위터·커뮤니티 분석결과(3.4~3.10)

민원 동향

- 3월 2주차 민원은 316,111건(일평균 45,159건)으로 지난 주(270,726건) 대비 **16.8% 증가**
 - 활동량이 느는 봄을 맞아 불법 주정차 등 생활불편 신고 증가,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명칭 변경 요구 등이 신규 이슈로 등장



- 분야별로는 아파트 품질관리 개선 등 주택·건축(78.7% ↑), 대구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등 산업·통상(36.8% ↑), 배곧신도시(경기 시흥) 행정구역 조정 등 행정·안전(21.4% ↑) 분야의 민원 증가

주요 민원

□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명칭 변경 요구 (1,534건)

- LH가 시행하는 신혼희망타운(평택고덕, '21년 5월 준공 예정) 아파트 명칭이 입주예정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'신혼희망타운'으로 그대로 부여된다는 소식에 집단민원 발생

-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'신혼희망타운' 대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네이밍을 하거나, 타 사례(SH 작명위원회 등)와 같이 안건 논의체를 통해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



※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내용이 게시(3.12.)되어 12,568명 서명(3.17. 11시)

- ✓ 아파트명에 특정 계층을 낙인찍는 LH 정책의 철회를 요구합니다. (3.11. LH)
- ✓ 저는 입주할 연도에 결혼 9년차이고 아이는 초등학생이 됩니다. 신혼만 사는 곳입니까? 한부모 가정도 삽니다. (3.10. LH)
- ✓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(입주예정자 분양지분 65%, LH 35%)로 추진되는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네이밍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. (3.14. LH)

(참고) 신혼희망타운 사업 개요

▶ 신혼희망타운이란?

- 주거복지로드맵('17.11.29.)에 따라 공급되기 시작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하여 분양형으로 공급(단, 본인 희망 시 임대형도 가능)
- ※ 이후 기존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한 주거복지로드맵 2.0을 발표('20.3.20.)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'25년까지 모두 분양 완료 추진

▶ 청약 자격 및 소득 요건

기본자격			(분양형의 경우) 소득요건
①신혼부부	②예비신혼부부	③한부모가족	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% (맞벌이 140%)
혼인기간 7년 이내 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,	혼인계획 중으로, 입 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	6세 이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한부모가정	

□ 임산부 지원 (312건)

- 교통약자 편의 제공, 보건소 검진 등 의료 지원, 근로시간 단축 등 임산부 대상 각종 서비스 미비 및 불편 등 제기

* (관련보도) '20년 서울지하철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내용은 8,771건으로 월평균 약 731건(3.8. 매경)

- ▶ (지하철 배려석 이용 불편) 방송을 해주시긴 하는데요. 임산부 배려석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요, 저번에는 비어있는 임산부석을 찾으러 열차 3량을 뒤져 결국 일반석에 앉았습니다. (3.11. 서울시)
- ▶ (임산부 주차석 부정이용 단속 필요) 주차장 1층 임산부자리엔 항상 임산부등록증이 없는 차들이 대고 있습니다. 초기임산부라 몸이 너무 힘들어 2,3층까지 올라가기도 버거운데... 임산부 주차석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. (3.12. 경찰청)
- ▶ (임산부 건강서비스 재개 요청) 30주 넘은 임산부입니다. 조제분유, 쌀 등 대상자별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보건소 대면업무가 안된다고 1월부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. 하루 빨리 해결해주세요. (3.9. 부산시 사상구)
- ▶ (임산부 농산물 지원 건의) '20년 처음 시행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'21년에 확대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예산 소진으로 신청을 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. 되도록 추가예산 확보 부탁드립니다. (3.11. 경기 성남시)

□ 국민취업지원제도 (118건)

- 올해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(생계안정 소득지원+취업지원서비스 동시 제공)인 '국민취업지원제도*'에 관한 법령 질의 및 제도개선 건의 등

*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21.1.1.)」 관련(1.1~3.14, 1,177건 민원 신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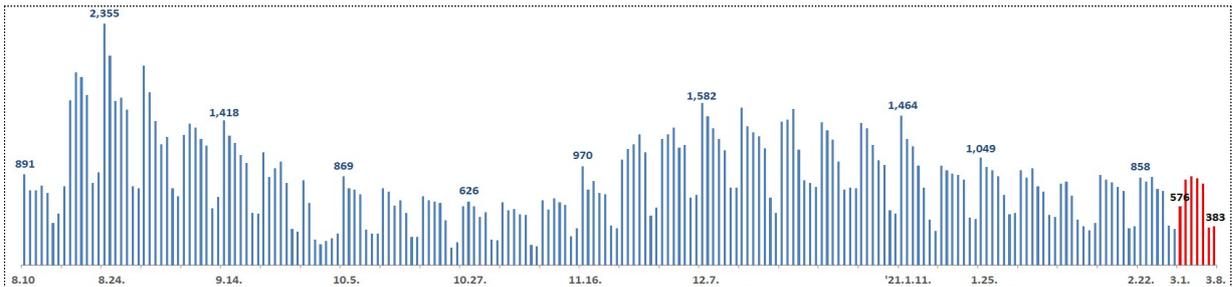
- ▶ **검토요청** (인터넷 뱅크 활용 건의) 카카오뱅크라서 국민취업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네요. 디지털화폐 시대에 시중은행만 취급하시는 건가요? (2.26. 고용부)
- ▶ (관련서류 확인기간 과다 소요)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인데요, 1월경 기초수급 주거만 신청했으나, 고용센터의 시스템에서는 이것 외 다른 것도 신청이 되어 있다며 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만 합니다. (3.8. 고용부)
- ▶ **검토요청** (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개선)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계획을 4개 세우고 3개를 이행하면 25만원이 감액됩니다. 구직활동 2개 이상이면 100% 지급하거나, 이행 비율에 따른 감액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게 합리적입니다. (3.4. 고용부)

민원 예보

□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(2020-01호, '20.2.12.)

- 3.8~3.14 동안 '코로나19' 관련 민원은 4,689건(일평균 670건), 지난주 (3.1~3.7, 4,673건)보다 0.3% 증가

<최근 30주 간 민원 추이>



- 코로나19 관련 민원 주요 30개 연관 키워드 및 사례



□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
보건소, 위험성, 소상공인, 선별진료소 등

- **[보건소 내 코로나 검사과정 불만]** ①코로나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. 야외에서 대기하는데 아침에 추웠음에도 가스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난로를 늦게 가동하고, 대기 줄 세우기도 엉망이고 진행도 미흡하였습니다. **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온 불안한 사람들에게 불편함까지 주는 상황이 꼭 시정되기 바랍니다.** (3.8. 서울시)
 ②코로나 검사를 위해 보건소에 방문할 때마다 업무처리가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. **검사 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도 없고,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으며 검사자 질서 유지에 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.** (3.11. 경기 안산시)
- **[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]** ①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,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제는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그런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책 때문에 **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억울하고 답답합니다.** (3.9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 ②학원 개원 후 코로나가 터져 집합제한으로 수업을 몇 달 못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. 그런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1~3차 중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. **업종제한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의아하고 허탈합니다.** (3.9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